

IMF 구제금융 사례와 주류산업에 주는 시사점



심 영 섭
〈산업연구원 연구원〉

외환위기와 이로 인한 IMF 구제금융은 우리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성장과 물가, 금리, 고용 등 거시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산업 및 기업활동에도 결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영향은 외환위기를 야기시킨 원인에 의해서는 물론이고,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과 IMF 관리체제하에서 운용되는 결과 등에 의해서도 좌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외환위기의 원인과 해결과정, 예상되는 처리결과와 영향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비단 우리나라의 경우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IMF의 구제금융과 관리체제를 겪은 외국의 사례들도 참고해 볼 만하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산업 및 기업활동, 특히 주류업계에 시사하는 바를 찾아보고자 한다.

I. 한국의 외환위기와 IMF 구제금융

1. 원인

IMF의 구제금융과 관리체제를 야기한 외환위기의 원인은 여러 각도에서 분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정부의 외환위기에 대한 정책대응이 부적절했다든지, 종금사 등의 금융기관이 단기외채에 지나치게 의존하

■ 目 次 ■

- I. 한국의 외환위기와 IMF 구제금융
- II. 외국의 IMF 구제금융 사례
- III. 국내외의 사례가 주류산업에 주는 시사점

면서 이에 대한 운용과 관리를 부실하게 하였다든지 하는 것도 중요한 원인들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금융 부문과 실물부문의 취약성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가 있다.

먼저 금융부문의 취약성을 들 수 있다. 정부가 그 동안 금융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함에 따라 금융부문의 비효율성이 노정되고 크게 늘어난 기업의 부실 채권은 금융산업의 안정성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국내 기업의 잇따른 부도사태와 동남아 외환위기와 어우러지면서 신규자금조달의 중단, 환율급등, 증시붕괴를 초래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단기외채에 대한 채권은행의 상환회수와 환율 방어 등으로 급격히 고갈됨에 따라 외국투자자들의 우리 금융기관에 대한 신인도가 급격히 떨어짐으로써 외채위기의 악순환이 초래되었다.

실물부문의 경쟁력 약화가 결국은 외환·금융위기로 치닫게 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도 또한 들 수 있다. 우리 경제는 그 동안 첨단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선진국을 따라잡지 못한 채, 전통적인 성숙산업은 중국 등 후발공업국들의 거센 추격을 받는 등 샌드위치의 경쟁력으로 고전을 겪어왔다. 특히 지난 94년에 단행된 중국의 위안화에 대한 대폭적인 평가절하는 그나마 취약했던 우리의 경쟁력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이로 인해 90년대 초반 이래 경상적자가 크게 누적되었고, 결국 외국자본의 유입에 의존하는 구조를 갖게 되고 말았다.

이렇게 보면 경제위기는 경상수지의 불균형에 따른 불안요인들이 상존하는 가운데 금융부문의 부실로 인하여 외환의 공급과 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으로써 금융산업 그 자체는 물론이고, 나아

가 우리 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취약하게 하고 말았다. 그 뿐이 아니다. 그 동안 기업은 시장경쟁의 효율성을 활용하지 못하였고,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경제행위를 영위하지 못하였다. 정부는 정부대로 시장기능의 활성화보다 규제와 개입에 더 익숙해져 있었다. 위기는 갑자기 들이닥친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에 이미 내재되어 있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한때 한강의 기적을 실현하였다고 우쭐대던 우리 경제는 결국 시장경제의 부실함 때문에 위기에 봉착하고 만 것이다. 금융 및 외환위기, 그리고 IMF의 지원금융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진입에 실패하였음을 대내외에 보여준 단적인 예이다. 시장경제의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경제발전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교훈을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얻게 되었다. IMF 프로그램의 이행이 바로 그것이다.

2. 외환위기의 해결과정

IMF 관리체제하에 들어간 우리 경제는 거시경제, 기업경영, 산업구조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강도높은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IMF와의 협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만큼 때로는 자율적인 개혁프로그램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단기적으로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수반될 수도 있는 일이다.

우선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장, 물가, 경상수지, 재정 및 금융 등 제반 정책지표에 있어 IMF가 제시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를 운용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100여 일 동안의 경제운용과정에서 몇 차례의 조정과정을 거쳐 왔으나, 우리 경제는 기본적으로 저성장, 경상수지 흑자, 고금리, 통화 및 재정긴축 기조를 IMF 체제를 극복할 때까지 유지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거시경제 목표는 단기

적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이 안정되고 외채상환능력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향상될 때까지는 불가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이다.

IMF 체제는 기업의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 재무구조, 노동시장구조, 경영투명성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할 만큼 혁신적인 구조조정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도 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IMF 관리체제하에서 요구되는 기업의 구조조정은 자발적인 의지와는 관계없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리고 짧은 기간 내에 획기적인 구조조정을 실행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과거의 경우와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것이다.

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은 산업활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파급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산업의 급속한 구조조정이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산업 및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초긴축의 재정 및 금융정책,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저소비로 대변되는 새로운 경제환경은 분명히 기업의 투자활동과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에 더하여 금융산업 개편과 기업의 구조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데다, 동남아 외환위기의 확산 움직임과 중국의 평가절하 가능성 그리고 빠른 속도로 전개되는 경제세계화의 추이 등과 같은 대외적인 제반 여건 또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장차 일어날 산업의 구조조정 방향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일은 쉽지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가 촉발된 이후 지난 100여 일 사이에 일어난 산업현장의 변

화움직임이 시사하는 바에 따라 향후에 예상되는 변화를 그려본다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고환율과 국내경기의 불황으로 인해 수출부문과 내수부문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내수침체로 인한 산업활동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기업들의 노력이 수출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화 가치의 하락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이점이 되살아나는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수출시장 진출노력이 활발해지고 있어 산업별로는 수출산업의 비중이 내수산업의 비중을 앞서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다만 수출산업의 구조가 7, 80년대로 회귀하고 있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 주요 교역상대국인 동남아 국가들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외환위기를 겪고 있어서 수출경쟁력이 얼마나 지속될 지 아직 속단할 수가 없다.

한편, 수입의 경우는 고환율에다 무역금융의 애로로 인해 상당히 부진해지고 있다. 수출산업과 연관되지 않은 최종소비재의 수입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수출산업에 사용되는 원자재 및 중간재의 수입은 환율절하에 따른 가격상승으로 인한 수입감소효과와 수출증가에 따른 수요유발효과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아직까지는 외환위기의 여파로 무역부문에 있어서도 금융경색이 지속되고 있어서 수입감소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부문별로는 수입상품이 국산으로 대체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무역금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수출이 활기를 지속할 경우에는 수입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입의 이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와 자금경색, 내수시장의 급속한 위축 등으로 인해 국내 생산기반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다. 그 동안 공급과잉이 우려되던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투자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전자, 정보통신,

첨단산업 등 벤처비즈니스형 산업에 대한 투자는 다소 늘어날 전망이지만,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큰 내구소비재 산업의 경우에는 생산감소 및 재고증가가 크게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들은 강도높게 추진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와 구조조정에 따라 기업활동의 패턴도 바뀌어갈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규모 및 범위의 경제보다는 기업간 협력관계를 통한 네트워크 경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다. 능력있는 흑자기업의 잇따른 도산은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해서 기업경영의 행태도 외형 중시에서 수익성 중시로 바뀌고 있다. 기업의 설비투자는 단순한 생산능력의 확장투자에서 합리화와 기술개발이 중시되는 투자로 바뀌어 갈 전망이다.

II. 외국의 IMF 구제금융 사례

1. 멕시코

1995년에 외환위기를 겪은 멕시코 경제는 강력한 재정·금융긴축, 구조조정, 금융개혁 등의 긴급경제대책의 파장으로 한동안 큰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개혁정책의 효과와 수출확대에 힘입어 멕시코 경제는 1996년 하반기부터 회복하기 시작하였으며, 1997년에는 성장과 물가 등 제반 지표들이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1995년 3월 초 멕시코 정부는 금융 및 외환 위기에 따른 경제붕괴 사태에 직면하여 미국과 IMF의 대규모 긴급 구제금융을 지원받으면서 강력한 비상경제대책을 시행하였다. 당시 IMF가 강도높은 재정·금융 긴축을 요구하며 멕시코에 제시한 거시경제조정 내용은 강력하였다. 즉, 경제성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할 것,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의 비율을 1994년의 8%에서 1995년에 4%로, 1996년에는 다시 3~3.5%로 낮출 것, 연간 물가상승률을 1995년 1분기의 30% 이상에서 1995년 4분기에는 9% 수준으로 억제하고 최저임금인상률도 억제할 것, 재정수지의 흑자를 1994년의 2.6%에서 1995년에는 3.4%로 확대할 것, 부가가치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고 정부고용의 동결과 공공투자의 삭감을 실현할 것,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을 억제하고 자유변동환율제를 유지할 것 등이 그것이었다. 물론 금융기관의 개혁과 채무구조 개선을 위한 금융구조조정 프로그램도 진행하도록 하였다.

강력한 긴축정책을 내용으로 하는 IMF 프로그램이 추진되는 동안 멕시코 경제는 매우 고통스러웠다. 1995년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6.9%로 대폭 후퇴하였으며, 1996년 1분기까지도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었다. 물가와 금리가 폭등한 가운데 산업생산은 1995년에 8% 이상 감소하였고, 건설업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 무려 25%의 생산감소가 일어났다. 이러한 경제후퇴로 인해 실업자가 전년에 비해 두 배로 늘어나고, 실질임금은 전년보다 24%나 하락하였다. 실업률은 1995년 10월에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실질임금의 하락세는 1996년 말까지 지속되었다. 금융 및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이 GDP의 25%에 달한 것으로 정부가 추정할 정도로 멕시코 경제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였다.

멕시코 경제는 수출확대를 통해 위기의 탈출구를 마련하였다. 환율급등을 계기로 멕시코 정부는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하였다. 환율상승 효과 외에도 석유 수출가격의 탄력조정,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외국인기업에 대한 투자확대 요청, 민간부문의 구조조정 촉진 등이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뒷받침하였다. 1995년 2분기부터 멕시코의 수출

이 1995년 2분기부터 급등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힘입어 전년도에 184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던 무역수지가 1995년에는 74억 달러의 흑자로 전환되었다. 수출확대는 비단 무역수지의 개선에 그치지 않고, 경제회복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었다.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제조업부문의 고용을 창출하고, 이것이 소득을 증대시켜 민간수요를 유발함으로써 제조업과 건설업의 생산증가를 가져오는 등 선순환의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가히 경제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가 컸음을 알 수 있다.

마침내 멕시코 경제는 1996년 2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여 1996년에는 5.1%의 성장률을, 1997년에는 6.5%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확실하게 성장기반을 구축하였다. 멕시코는 1995년 10월에 이미 미국의 자금지원분 중 일부를 상환하기 시작하였고, 1996년 1월에는 IMF로부터의 추가 지원자금을 중단한다고 천명하였다. 금융·외환위기가 멕시코 경제를 엄습한 지 불과 1년만의 일로써, 비로소 경제가 회생의 길로 들어섰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1996년에는 만기가 도래한 단기외채 290억 달러 전액을 상환함으로써 멕시코 경제가 금융·외환위기로부터 탈출하였음을 입증하였다.

멕시코는 IMF 금융지원을 계기로 긴축정책 실시를 통해서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경제재건에 비교적 성공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멕시코의 성공요인은 정부의 적절한 정책수립과 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신뢰성 확보, 輸出증, 국민의 공감대 형성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멕시코 정부는 외환위기의 주요인이 외국인투자자본의 갑작스런 대규모 유출이라고 판단하고, 투자신뢰도 회복과 금융부실 해소를 정책목표로 설정하는 한편 금융시장 개방을 통한 선진국의 자본유치에 노력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신뢰감 획득과 은행의 건전화를 도모

하였다. 또한 경제정책 당국자들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긴축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멕시코 정부는 勞·社·政 합의의 '경제비상구복을 위한 공동협약'을 통해 국민에게 긴축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동참하도록 설득하는 한편, 실업자 구제사업의 전개와 실효성있는 규제완화 등을 통해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였다.

이밖에도 멕시코의 사례는 금융·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그 가운데에서도 산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수출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먼저 들 수 있다. 무역 및 경상적자의 해소를 위해서는 시장개방 및 지속적인 구조조정 정책으로 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수출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는 일이 급선무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충격요법보다는 안정위주의 장기적인 경제체질 개선 노력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멕시코의 경제회복은 강력한 긴축에 따른 내뱃을 감수하면서 허약했던 산업의 기초체질을 개선시킨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멕시코 경제위기 극복의 선봉장이었던 세디요 대통령은 경제개방과 무역자유화로 대표되는 이른바 '자유화' 정책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자유화도 경쟁력이 뒤따르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산업 및 기업의 경쟁력을 확고하게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 멕시코의 금융·외환위기가 주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영국

영국의 외환위기는 70년대 초 오일쇼크와 함께 왔다. 1973년 제1차 석유파동 이후 영국 경제는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고,

그 여파로 실업률이 크게 높아졌다. 설상가상으로 물가가 폭등하는 가운데, 파운드화의 가치가 폭락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1976년 초만 해도 1 파운드당 2 달러를 웃돌았던 파운드화의 가치가 영국경제의 장기 침체로 하락을 거듭하여 같은 해 9월에는 심리적인 방어선으로 간주되던 1.77 달러 이하의 수준으로 내려앉고 말았다. 그러나 당시 영국은행의 외환보유고는 불과 30억 달러로 고갈되어 더 이상의 시장개입이 불가능한 지경에 있었다. 위기에 직면한 노동당 정부는 마침내 더 이상의 파운드화 하락을 막기 위해 1976년 9월 말 IMF 등에 국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IMF는 1976년과 1977년에 걸쳐 총 39억 달러를 영국에 지원하였으며, 국제결제은행(BIS)은 이와 별도로 파운드화 표시 자산의 돌발 인출에 대응하도록 30억 달러의 단기자금을 지원하였다.

IMF의 국제금융지원 조건은 재정적자 축소 방향으로 예산 및 통화정책을 수정하고, 2년간 공공지출의 35억 파운드 삭감하며, 국내 총 여신한도를 2년간 18억 파운드 감축하는 한편, 총통화량 증가율을 10%로 억제하는 것 등이었다. IMF의 권고에 따라 영국 정부는 긴축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한 후속조치를 단행하였다.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가장 먼저 수출부문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파운드화 약세에 힘입어 수출이 1977년 들어 전년보다 무려 23%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민간 소비는 실질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어 전년보다 1% 감소하였고, 이러한 내수부진으로 인해 설비투자도 7%나 감소하였다. 성장률이 다시 회복한 것은 1978년에 들어서야 일이다. 물가상승률이 대폭 둔화된 데다 임금인상률이 이를 크게 상회함으로써 실질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민간소비도 상당폭 늘어났고, 설비투자도 크게 증가하였다. 파운드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섰음

에도 불구하고 수출 또한 전년에 비해 21%나 증가하였다. 1978년의 성장률은 3.5%로 높아졌으며, 그 덕분에 실업률은 낮아졌다.

이상과 같은 영국의 사례를 통해 몇 가지의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다. 무엇보다도 영국 정부가 IMF의 엄격한 조건을 수용하여 긴축정책을 추진한 결과 파운드화의 신뢰를 회복하였다. 환율이 안정됨에 따라 금리가 안정되고, 외환보유고도 늘기 시작하였다. IMF의 이행조건이 너무 엄격하고 까다로웠기 때문에 영국 정부는 한편으로 IMF와의 협상을 통해, 또 한편으로는 영국 국민들을 잘 설득하여 공감대를 넓혀가면서 개혁조치를 시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감한 산업구조조정과 규제완화 조치를 일관성있게 추진해 가는 것이 위기극복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에서도 역시 수출부문에서 위기극복의 돌파구를 찾았다는 점이 멕시코의 경우와 유사하다. 그러나 국민들의 소득증대와 이에 따른 내수증대는 시차를 두고 이루어졌다는 점이 또 다른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3. 태국

태국에서는 현재 외채위기가 진행중이라는 점에서 앞의 멕시코나 영국의 경우와는 다소 다르다.

태국의 금융·외환위기는 기초적인 경제여건의 악화로부터 비롯된다. GDP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이 1996년에 들어와 주력 수출품목의 수출가격 하락 및 선진국 수입수요 둔화로 대폭 감소되었고, 이에 따라 경상적자가 GDP대비 8%까지 확대되고 말았다. 경상적자의 확대는 대외채무의 확대로 이어져 외채규모가 1994년의 610억 달러에서 1995년에는 756억 달러로, 1996년에는 830억 달러로 증

가하였다. 게다가 그 동안 해외자본의 유입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산업화에 사용되지 않고 부동산 투자에 집중됨에 따라 공급과잉에 빠진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기 시작하면서 금융기관의 부동산관련 대출부실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말았다.

이러한 경제여건의 악화와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바트貨에 대한 절하압력이 커졌으나 달러貨에 연동되어 있는 바트貨는 달러 강세로 고평가 상태를 지속하면서 시장과의 괴리가 크게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바트貨는 외환시장에서 투기의 대상이 되었고, 중앙은행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바트貨에 대한 투매 현상이 지속되어 환율제도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급기야 1997년 7월 태국은행이 환율제도를 복수통화바스킷 방식에서 관리변동환율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바트貨는 7월 초 달러당 24.4바트에서 7월 말에는 34바트로 폭락하였다. 마침내 외환위기가 발생한 것이다.

IMF는 1997년 8월 172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결정하면서, 42개 부실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비율 강화 및 부실여신 공개 등 금융시스템의 개선, 긴축경제정책의 추진이라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긴축경제정책의 내용은 1998년까지 GDP 성장률을 3.5%로 유지, 임금상승 억제, 물가 5% 유지, 외환보유액 250억 달러 확보, GDP대비 재정흑자 비율 1% 달성 등이었다. 태국 정부는 이러한 IMF의 조건을 바탕으로 한 경제종합대책, 금융안정대책 등의 후속 조치를 잇따라 발표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태국의 경우에는 그러나 아직 정부의 경제난국 수습능력이 국내외적으로 신뢰감을 얻지 못하고 있어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정불안, 민족자본의 부재로 인한 높은 외자의존도, 노동집약적 저가제품위주의 산업구조 등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서

IMF 금융지원의 효과가 가시화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Ⅲ. 국내외의 사례가 주류산업에 주는 시사점

우리나라보다 먼저 IMF 구제금융지원을 받은 국가 가운데 중남미, 유럽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례연구를 통해서 보면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금융 및 외환위기의 배경에는 하나같이 경직된 금융제도, 금융기관의 부실, 경상적자의 확대, 실물경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환율 등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와 흡사한 상황이다.

멕시코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금융·외환위기 극복사례를 보면, 위기의 발생요인이 무엇이든 시간에 대부분 실물경제의 회복이 경제회생의 관건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개혁 프로그램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확보 여부와 수출증대 노력이 경제회생의 관건이다. 수출이 증대하게 되면 제조업 부문의 고용확대와 이로 인한 소득증대로 이어지고, 이것이 또다시 내수증대와 건설 및 제조업의 생산증가라는 선순환의 효과를 가져와 경제전반에 걸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외환위기를 겪는 나라들의 환율이 대부분 큰 폭으로 절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여건을 활용하기에 따라 수출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도 있는 일이다.

우리나라 주류업계에서도 이러한 여건을 적극 활용하여 과감하게 수출시장 개척에 나서므로써 위축된 내수시장의 부진을 만회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주류산업은 제품의 특성상 가격경쟁력만으로는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리 고유의 기술을

개발하고 과학화하여 체계적인 생산공정을 거쳐 만든 상품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포도주와 꼬냑의 나라 프랑스가 작년 한해동안 주류제품의 수출로 무려 에어버스 비행기 135대에 해당하는 금액의 외화를 벌어들였다고 하니 주류산업은 이제 단순히 문화상품의 차원을 넘어 전략적인 수출산업화할 수도 있는 일이다.

이러한 수출확대 노력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수입에 의존하는 원자재의 효율적인 환차손 관리도 필요하다. 주류의 제조원료 가운데 위스키는 100%, 소주 및 맥주는 50~85%를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고회율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원료 수입의 환차손 관리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다.

IMF의 구제금융을 불러들인 위기는 순수하게 국내경제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국내적인 충격(local shock)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적인 충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계화의 도도한 흐름이 전세계적인 추세(global trend) 속에서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세계화의 추세가 깊어져 개방화·세계화된 시장환경에서는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언제든지 시장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도 우리나라 주류업계가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수출시장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주류산업의 대부분이 내수시장을 겨냥하고 있으나 이미 상당부분 수입주류에 시장을 빼앗기고 있는 현실을 보아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다는 사

실을 실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류산업이 국제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바로 IMF의 위기가 업계의 국제적 안목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주류산업이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업의 경쟁력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하다. 특히 IMF 관리체제하에서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과제다. 여신규제의 강화와 기업의 수익성 저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계사업장을 과감히 정리하는 등 구조조정을 통한 재무구조의 개선이 시급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의 구조조정노력은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더욱이 IMF 관리체제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거의 모든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어 이로 인한 또 다른 어려움도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업계내에서는 이미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성공한 사례가 있어서 다행이다. 동종업계의 여타 기업 입장에서는 벤치마킹의 기회가 생긴 셈이다.

IMF 관리체제를 벗어날 때까지는 긴축정책에 따라 저성장 기조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것이며, 그 와중에서 한계기업의 도산이 속출하는 등 고통스러운 구조조정과정을 겪어야 한다. 이제는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설 수가 없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여력이 있다 하더라도 WTO 체제하에서는 정부가 직접 지원에 나서는 일이 불가능하다. 그런 만큼 기업 스스로 자구노력에 나서는 개혁의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